

‘영호남 상생 열차’ 출발 지연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올해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내년 총선 맞물려 우려 목소리



새해를 기다리며... 2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입구에 설치된 폴리 조형물에 'HELLO 2024'라는 문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역대 최다 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상생 열차의 출발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도 거세 내년 국회 처리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달빛철도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처리 법안이 많고, 달빛철도 특별법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갔다. 이 법안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역대 최다 수 국회의원 공동발의’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서도 정부 부처의 거센 반대 탓에 법안이 늦장 처리되기도 했다.

국토위는 내부 진통 끝에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항 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

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속 예타는 최장 24개월(철도 사업)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기간만 단축될 뿐 기존 예타 절차를 그대로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달빛철도는 예타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살리면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 법안은 빨라도 내년 2월 국회에

서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이번 국회에선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를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달빛철도로 변경)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또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86.34분으로, 고속철 83.55분과 비교해 불과 2분여 정도 차이 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결국 폐업한다

3차례 공고에도 운영자 못찾아 ... 1요양병원은 한시 연장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결국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폐업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 제2요양병원은 위탁 계약 종료일인 오는 31일 모든 외래·입원 진료료 종료하고 폐업할 예정이다.

제2요양병원을 맡아 왔던 전남대병원도 이날 광주 동구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탁운영을 포기했다. 2013년 7월부터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은 최근 5년간 28억원의 적자 발생에 따라 광주시의 추가 보전을 요청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31일 위탁 기한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 임시조치로 전남대병원과 연말까지 한시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196병상 규모인 제2요양병원은 올해 여름부터 환자 퇴원·전원 조치를 시작했고 현재는 입원환자가 남아 있지 않다.

일부에선 이미 요양병원의 기능이 공공 영역에서 사립병원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제2요양병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2요양병원 폐업과 함께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도 위탁 계약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새 운영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 역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한 상태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13억8000만원 지원을 편성했으며, 역대급 재정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증액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장려금 성격의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이은결 마술 강연



김난도 교수

김정운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2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2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4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 광주, 아파트 화재 참사 안전지대 아니다 ▶6면
- 2023 광주-전남 체육 결산 ▶18면
- 신 팔도명물 - 바다향 품은 동해안 시금치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수산과학기술에서 찾다 Ocean Tomorrow, with KIMST